



표지사진 : 인도 동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쉬람단(공동작업) 모습

JTS 통권 36호 2002년 7 · 8월

펴낸날 : 2002. 7. 1

펴낸이 : 법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최정연, 김경희,
이순희, 이미경, 윤미옥,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 4 Youth Shiramadana School of J.T.S
(제이티에스 청소년 노동학교)
- 6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
- 7 후배들을 위하여
- 8 약속이 준 갈등

지금 북한에서는

- 10 북한어린이가 돕기 어떻게 이뤄지나

후원의 소리

- 14 사랑의 영양식, 통일의 영양식
- 15 감귤 꽃향기 속에
- 16 이웃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면

광고

- 17 여러분 생활필수품 보내주세요

따뜻한 이웃

- 18 밀양에 있는 영남농업시험장
- 20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신정열님과 그의 만남

활동보고 및 안내

- 22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사업
- 23 국내사업
- 24 물품후원
- 25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 26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28 라진 · 선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 현황
-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Youth Shiramadana School of J.T.S

(제이티에스 청소년 노동학교)

람 지(인도인 자원봉사자, 청소년 노동학교 책임교사)

JTS 산하에 있는 청소년 노동학교(YSS)에는 1개 반이 있습니다. YSS는 법륜 스님께서 교장으로 계십니다. YSS는 청소년 노동학교라는 뜻입니다.

이 학교는 10 - 15 살의 소년들에게 약간의 지식과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힌디 읽기, 쓰기, 영어 등을 공부하고 기술교육을 받아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절반 임금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기술자가 되어 인도의 어느 곳이든지 가서 기술자로서 대우를 받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계획입니다. YSS의 미래는 아주 밝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 람지입니다.

YSS의 학생들과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만이 아니라 휴식도 하고 기술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 노동자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학생들 모두 기술자가 되어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YSS는 매우 유명한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노동학교 선서문

- 나는 제이티에스 청소년 봉사단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 나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 일한다.
 - 나는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일한다.
 - 나는 나보다는 나라와 인류를 위해 일한다.



- 나는 제이티에스 청소년 자원봉사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살아갈 것을 선서한다.
-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전문기술을 갖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나는 친절할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생활원칙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 무엇이든지 기꺼이 한다.
 - 신체를 건강히 한다.
 - 마음을 밝게 가진다.
- 수행원칙
 - 모르면 곧 물어서 안다.
 - 틀린 줄 알면 곧 고친다.
 - 잘못된 줄 알면 곧 뉘우친다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

마노즈(인도인 자원봉사자, 수자타아카데미 근무)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의 점심을 만드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260명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아칸차(장영주)시스터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잘 모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아칸차 시스터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점심을 만드는 것을 마친 후에는 수자타아카데미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5학년까지 지리합니다. 6-7학년에 계는 역사, 사회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다음에는 타이핑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여 아칸차 시스터에게 보고합니다. 점심을 만들 때는 이 음식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궁리를 합니다. 때때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저는 언제나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타이핑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칸차 시스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소통이 잘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해를 잘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형님들과 누나들은 정말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JTS가 처음 이곳에서 일할 때, 저는 어렸어였습니다. 저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잘 압니다.

JTS의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INDIAN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JTS에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JTS를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하여

라즈 (인도인 자원봉사자, 수자타아카데미 근무)

저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라즈입니다.

전에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10학년 졸업을 하고 나의 후배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과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끔씩 제가 열심히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화가 날 때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리고

나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까 하고 고민을 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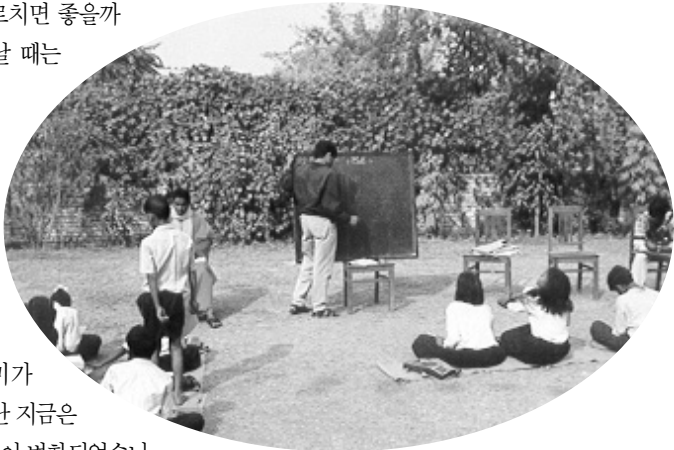
수자타 아카데미가

개교한 지 8년이 지난 지금은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다. 전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열리고 학생들은 공부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열고 난 뒤로 지금은 많은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JTS는 많은 일을 하고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밥도 주고 교육도 잘 시키고 많은 것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변화하였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계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약속이 준 갈등

이회승님(인도JTS 실무책임자)



관와 데비는 내가 결핵환자를 관리하면서 추천한 첫 번째 그룹의 환자였다. 그녀의 동네는 소라즈비가로 기록되어 있다. 약을 받으러 오는데, 자주 하루 이틀 늦게 온다. 이 말은 하루 이틀간 약을 먹지 않고 거른다는 뜻이다. 그 때마다 주의를 주었다. 결핵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월간 꾸준히 먹었다가 2-3일만 안 먹으면 2-3일간만 치료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9개월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와라, 설명을 하니 알겠으면서 그 대신 1달 분 약을 달라고 한다.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 집이 멀단다. 소라즈비가면 가까운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 서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 보드가야에서 한참 더 가는 동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소라즈비가는 누구의 집인가 하고 물어보니 외할아버지 집이란다.

그 외할아버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결핵 환자이다. 이 환자도 주소를 숙인 것이다. 가난이 죄지 환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면 돈이 없어 약을 먹다 말다 병을 키우다가 결국 온 가족에게 전염시키고 죽게 된다. 이런 환자는 관리가 잘 안 된다.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약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집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이미 시작된 것을 어찌하랴. 1달 분을 주면 약을 먹는 동안 검사 일이 언제 걸릴 지 모르니 2주분을 줄 테니 약 떨어지기 하루 전에 와서 꼬박꼬박 약을 먹어라, 자주 이렇게 거르면 약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격정하지 말라고 대답한다. 2월 부터 다시 관와 데비가 약을 거르기 시작했고, 2월 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약을 주면 안되겠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3월 초에 약이 떨어진 뒤 2일 만에 왔기에 왜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친척이 초상을 당하여 오

지 않았단다. 그래서 죽은 친척이 어디에 사느냐 물어보니, 보드 가야란다. 순간 너무 껄껄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주소를 속이고, 약을 자주 거르더니 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도는 친척 초상에 여자들은 가지 않는다. 딸이나 며느리만 초상에 참가하고 그것도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저녁에 죽으면 다음날 아침 일찍 화장을 하기 때문에 2일씩 늦을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약을 주기 시작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봐주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였으나 이제는 너무 자주 약을 걸러서 약을 줄 수 없다 하고 여러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다. 이것은 남아있는 다른 환자를 위한 것이다. 환자들에게 밥과 약을 다 나누어 주고 다 돌아간 뒤 까미사르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아주 잘했다. 그 환자는 너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라며 위로한다. 까미사르가 돌아간 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철망치진 정원 안에 수명이 다한 바삭 마른 달나무 한 그루가 아직 뽑혀지지 않은 채 서있다.

- 2001년 11월 이전에 개별적 관리하던 결핵 관리 환자는 총 32명이었다. 총 32명 중 13명이 사망, 이사, 퇴출 등의 사유로 관리되는 환자는 19명이다. 이중 1명은 원치단체에 있다.
 2001년 11월 이후부터 결핵퇴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발견된 신규환자 총 25명이다. 이중 1명 사망, 1명 예방치료 성공, 현재 23명 관리중에 있다.
 인도JTS는 금년내 100여명으로 프로그램 확대예정이다. 기존환자들에게는 원치보다는 전염성 차단을 목표로 관리되고 신규환자들은 원치목표로 관리한다. 신규환자들 가운데 지난 6개월 이상 관리되던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원치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 “부처님 오신 날” 제등 행렬(2002.5)



북한어린이 돕기 어떻게 이뤄지나

이지현님(한국 JTS 사무국장)

지원하는 물자들을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나?

북한에 지원할 물자들을 언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지난번 보낸 물자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달려 있다.

JTS는 1997년부터 라선시 안주동의 물고기 가공 공장을 빌려서 그 곳에서 1998년부터 어린이 영양 식품을 만들어 라선시(라진-선봉 지구)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해 오고 있다.

한 달에 생산하는 어린이 영양 식품은 33톤이며, 이 영양 식품을 생산 하려면 쌀 15톤, 옥수수 10톤, 설탕 10톤, 분유 6톤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전지 분유, 설탕, 옥수수쌀(옥수수를 쪄개서 쌀과 같이 만든 것임)을 구입하여 부산항에서 동해를 거쳐 라선으로 가져간다. 일부 품목은 중국에서 구입하여 들어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쌀이다. 쌀값은 한국의 6분의 1 정도로 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한 달 전에 통일부에 대북 지원 물자를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나 보내겠다는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단체나 독자적으로 그 단체 명의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JTS는 1999년에 통일부로부터 독자 지원 창구로 승인 받았고, 2001년에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 받아 JTS 이름(라선JTS 현지 대표 사무소)으로 북한에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24일에는 라선시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영양식 재료, 의류, 신발, 문구, 어린이 영양제 따위 물자와 라선시 농업 300정보 지원을



나선시 지원하는 농장앞에서 (2002.4)

위한 비료와 비닐들을 보냈다. 또,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줄 국수용 밀가루 100톤과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지 협동농장 농업 100정보 지원을 위한 비료와 비닐들을 보냈다.

4월 23일, 오후 5시경 부산항 중앙 부두에서는 범륜 스님과 부산 정도법당의 신도분들, 한국JIS의 실무자, 자원 활동기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적식이 열렸다. 서울, 여수, 부산으로부터 실려 온 대북 지원 물자들을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고, 라선으로 갔던 배가 부산항에 돌아와서 대북 지원 컨테이너를 싣고 다시 라선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게 23일이었다. 라선으로 가는 중국 국적의 배는 동해의 원거리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거의 24시간이 걸린다. 4월 24일 오전 7시경에 떠난 배는 다음날 새벽녘이 되어서 라선에 도착하였다.

북한에서는 지원한 물자들을 누가 인수하며, 어디로 운반하나?

라선 항구에 도착한 JIS 대북 지원 물자들은 배에서 내려 항구에 보관한다.

보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보낸 물자를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 JIS의 최경숙, 박지나 이사가 중국을 통해 라선으로 들어갔다.

애초에는 4월 25일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 날이 북한 인민군 창설일이라 북한측 세관이 25, 26일 이틀 동안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7일 토요일에야 라선을 방문할 수 있어서 30일까지 라선을 방문하고 5월 2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4월 24일 부산에서 간 29개의 컨테이너를 4월 29일 월요일에 라선에서 인수할 수 있었다. 이 물자 중에서 어린이 영양 식품 원재료인 전지 분유, 설탕, 옥수수쌀은 안주동 어린이 영양식 공장 창고로 바로 운반되었고, 그 외에 가지고 간 의류, 가방, 신발, 문구 등은 라선시 인민위원회로 넘겨졌다.

우리는 그 배분 상황을 다음에 방문할 때 문서로 받기로 했다. 라선시에 지원된 비료 210톤과 비닐 18톤은 라선시 농업경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약된 농장에 지원하는 것이라 라선시 농업경영위원회



함경북도고아원 지원 밀가루 (2002.4)



에서 물자를 인수하였다. 농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전에 서로 계약을 맺는데, JTS에서는 증산분의 10%를 어린이 지원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함경북도 청진과 경성군 염분지 농장 100정보로 지원되는 물자를 인수하기 위해서 함경북도 해외동포 영접처 사람들과 경성군 농업 관계자들이 라선으로 왔다. 최경숙, 박지나 이사가 물자를 찾아서 이들에게 인수하면서 어떻게 운반해 갈 것인가를 물으니, 뽕통으로(북한에서는 기차 화통을 말함) 운반한다고 했다. 몇 년 전 북한 상황이 더 나빴던 때에는 운송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라선에서 청진까지 물자를 배로 운반하기도 했다고 한다.

운반된 물자들은 어떻게 어린이 영양 식품으로 만들어지나?



JTS 어린이 영양식 공장 변성기 앞 (2002.4)

라선시 안주동에 있는 어린이 영양식 가공 공장에는 20명의 인부가 있어서, 이들이 매일 영양 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겨울처럼 전기 사정이 나쁘지 않으면 무리 없이 한 달에 33톤의 영양 식품을 만들어 낸다. 공장에서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전력 소모가 적고 작동이 간단한

기계를 사용하여 영양식 가루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은 석유가 귀하기 때문에 석유로부터 만들어 내는 비닐류도 무척 귀해서, JTS에서는 지난 해부터 영양 식품을 담은 비닐 봉투와 마대를 보내고 있다.

지난 4월에도 6개월 동안 쓸 비닐 봉투(영양 식품 3kg 담김) 7만 장과 마대(3kg짜리 영양 식품 봉투를 가득 담아 운반함) 5천 장을 보냈다. 영양 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와 재고를 하루도 빠지 않고 기록해 두면 JTS이사들이 공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재고 파악 서류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두 달에 한 번 정도)

영양 식품을 어떻게 나눠주고,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먹나?

지난 2001년 4월까지의 공장에서 생산된 영양 식품을 한국에서 보낸 차량으로 조선족 대리인과 함께 직접 탁아소, 유치원에 배달하였다. 하지만 2001년 9월부터는 배분 방식을 바꾸어서 라선

시의 배급소를 통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배급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우유(북한에서는 소젖가루라고 함)를 주고,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쌀, 옥수수, 우유, 설탕을 혼합한 영양 식품 가루를 준다.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오



JTS 지원 영양식을 먹고있는 어린이들 (2002.4)

전 간식 시간(북한에서는 새참 시간이라 함)에 이 영양 식품을 물에 타거나 뜨거운 물에 반죽해서(익힌 식품임) 먹거나, 빵을 만들 때 같이 넣어 만들어 먹인다. 탁아소, 유치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JTS가 지원해 준 영양 식품을 주욱 먹고 자란 어린이들이 매우 튼튼해져서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분과 먹는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탁아소, 유치원에 배분된 영양 식품이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어린이들이 잘 먹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

JTS 이사들이 라선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공장에 들어서 지난 달에 어린이 영양 식품이 몇 톤이나 생산되었고 탁아유치원에는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한다. 그래서 물자 채고 현황과 탁아유치원 영양 식품 배분표를 다달이 작성해 놓으면 이사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한국JTS 사무실로 가지고 온다.

이 배분표는 원장들이 다달이 받은 물량에 대해 사인한 표이다. 그리고 방북할 때마다 몇 군데 탁아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들과 학부모에게서 확인을 받고, 이 과정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JTS가 지원한 물자들이 도착될 때마다 지원 물자에 대한 인수증과 그 사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온다.

- 위의 내용은 월간정도 제167호(2002. 6)에 게재된 내용이지만 JTS 북한지원 사업과정을 잘 알려주고 있어서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사랑의 영양식, 통일의 영양식

김금숙님(여, 회원, 작물시험장 농업연구사)

한국 JTS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 앞에서 북한 식량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강 건너 중국 쪽에서 망원렌즈로 촬영이 되었다는 어린 돌 박이 정도의 아기와 굶주림에 지친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컷을 몰리다 지쳐서 아이를 밀쳐내고 쓰러지고 그 아이는 배고픔에 계속 울며 엄마를 보냈다. 난 아이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차마 그 장면을 무덤덤하게 볼 수가 없었다. 저 아이의 배고픔과 그 엄마의 심정이 내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한 절실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이어지는 아나운서의 설명으로는 그 여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뒤 그 아이의 운명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

정말 그 날의 충격과 슬픔이 내가 북한 어린이 돕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직장에서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국은 JTS를 통해 라진시 후창농장 타아소 어린이 결연하여 70여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게 되었다.

처음 직장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직장 동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후원을 권유할 때는 다소 쑥스러움도 있었지만 이 정도 발품을 팔아서 1명이라도 더 북한의 어린이가 영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인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꺼이 후원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였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결연 후원은 가능했던 것 같다.

그분들도 분명 얼마 전 발행된 JTS의 소식지 표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줄을 선 북한 어린이들

을 보면서 우리가 후원한 영양식 덕분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구나 하고 안도감과 후원의 보람을 분명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 아이가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때 북한의 어린이들도 누구의 도움으로든지 건강하게 성장하여 함께 통일의 주역으로 만나 서로 신뢰하면서 미래의 한반도를 힘차게 짊어지고 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자 JTS 북한어린이 돕기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감귤 꽃향기 속에

김영호님(남, 회원, 감귤농장)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오월이 지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나 봅니다. 내가 사는 제주의 오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청자 빛 푸른 하늘에 따갑게 내리는 태양, 쪽빛 푸른 바다에 넘실대는 물결, 어디에서나 이삼십 분만 가면 바다가 보이는 이곳 제주 오월이 오면 짙고 향기로운 감귤 꽃향기가 온 사방에 흘러 넘치고 감미롭게 낭만이 흐르기도 합니다. 장미, 아카시아, 인동 꽃, 온갖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냥 바라보며 감탄에 젖어 있을 따름입니다

오월이 오면 이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꽃들이 잔치 속에서도 가슴 밑바닥에 진하게 남아 흐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절에 다니시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던 어머니 생각 때문인가 봅니다. 그 어렵던 시절 다섯 남매의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무던히도 애를 쓰시며 사셨던 내 어머니는 그 힘겨운 삶의 아픔을 부처님께 기대어 사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월이 오면 9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가슴 저 편에서 시린 기억으로 가만히 다가옵니다



내가 Jis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 계절이 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99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우연히 MBC 여성시대와 대담을 나누는 방송을 듣게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Jis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 동포들에 대한 애잔함과 여러 나라의 고난과 궁핍에 작으나마 손을 내밀어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연을 맺으며 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내가 이득을 보면 보는 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죄의식 때문에 부처님 앞에 기대어 기원하고 용서를 빌고 하였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에 꽃이 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고통을 참으며 정성을 모아온 뿌리, 줄기, 잎들이 있음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과 향기에 감탄과 찬사를 던질 뿐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면

김정윤님(자원봉사자,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2학년)

지난 학기를 마치며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던 일이 바로 참사랑 봉사 활동이었다. 그래서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기다려지던 일 역시 참사랑 봉사 활동이었다.

개학을 하기도 전, JTS 국제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겨울방학동안 계획했던 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난 얼마나 자신감에 차있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가졌었던 그 뿌듯함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낼 욕심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JTS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지난해는 메일 교환으로만 활동을 해와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지금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JTS에 찾아가 만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



JTS에서 내가 하는 일은 국제 기구인 UN, OCHA 등에서 작성한 영문 자료를 번역하는 일이다. 이번 학기에 번역한 자료들은 대부분이 북한 식량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끝날 것 같지 않은 북한 식량 부족 사태 보고를 번역하면서 그곳의 굶주림에 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화를 내고 있었다.

지난 5월 12일, JTS는 모금 활동을 위해 종로에서 열린 연등축제 행사에 참여했다. 나는 하루종일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외국인들에게 JTS가 지원하는 인도 빈민지역 어린이들이 만든 물건, 스님들이 행사를 위해 내어놓으신 소장품들을 팔고 JTS를 홍보했다.

노랑머리아저씨는 염주 하나에 과감히 10달러 짜리 한 장을 주셨다. 큰절이 절로 나올 것 같았다. 빨강머리 아줌마는 그냥 1000원 쥐어주셨다. 고수머리 총각은 지갑 꺼내어 놓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며 10000원을 선뜻 내어놓고 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반면 홍보와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며 봉사 활동이란 나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해 나가야 더 빛나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

앞으로 인연이 이어질 때까지 JTS에서 활동 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북한 어린이들이 느끼는 굶주림, 인도 빈민지역 어린이들이 느끼는 굶주림의 느낌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굶주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이다.

여러분 ~ 생활필수품 보내주세요

1. 물품후원내역

- 1) 생활필수품 : 수건,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양말, 운동화,
- 2) 문구류 및 의류 : 공책, 연필, 스케치북, 크레파스, 어린이용 단체복

2. 특기사항

- 1) 후원물품은 모두 새것이어야 합니다
- 2) 포장된 대로 모집을 합니다.

3. 지원되는 곳

- 1)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등게스와리 16개 마을주민 10,000여명, 1,200명 어린이, 200명 초등학생, 중학생 20여명 지원
- 2) 북한 라선시 116개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11,000여명, 함경북도 고아원 4,000여명 지원
- 3) 파키스탄 국경 변 아프카니스탄 난민지원

4. 참가하는 단위

- 1) 따뜻한 마음이 있는 개인
-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학급 단위
- 3) 마을 및 아파트 단위
- 4) 생활필수품 만드는 기업
- 5) 뜻이 있는 단체



5. 참가하는 방법

- 1) 각 소단위로 모아서
- 2) 지역별로 모집



6. 지역별 담당

- | | |
|-----------------------|-----------------------|
| • 서울 02-587-8993 송하경 | • 부산 051-557-6372 김희숙 |
| • 대구 053-744-3025 전병득 | • 대전 041-253-8990 전외자 |
| • 청주 043-284-5951 실상화 | • 마산 055-247-8991 유애경 |
| • 광주 062-265-9606 심정순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 한국제이티에스 자원개발부 김애경

전화 : 587-8756 전송 : 587-8998 <http://www.jts.or.kr> e-mail: ypower@jts.or.kr

밀양에 있는 영남농업시험장



성재덕님

성재덕님은 1953년생으로 영남농업시험장 전작과에서 전작물을 재배 연구하고 계십니다.

2년 전부터 밀양시 내이동 1085번지에 있는 영남농업 시험장, 부산원에시험장, 영덕 출장소 회원 50명이 함경북도 라진시에 있는 후창농장유치원 71명 어린이와 결연을 맺고 매월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성재덕님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 (사)한국제이티에스를 알게된 동기는?

우리 시험장은 작은 소도시에 자리잡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작물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은 외향적 활동에 대한 정보에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었는데 김금숙 선생님께서 JTS를 알게되었고 우리 직원들에게 JTS가 무슨 일들을 하는지를 세심하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 회원은 몇 명인가요?

총 직원 120명 중 가입 회원은 50명입니다.

■ 회원들이 저희 회에 대해 원하는 점이 있다면?

JTS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를 지상과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회원 확보를 유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 어린이에게도 같이 후원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 일을 하면서 보람된 점이 있다면?

끓주리며 허덕이는 작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시는 많은 훌륭한 회원님들이 있는데 어찌 감히 내가 보람된 일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남농업시험장 전 직원

■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항상 내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가족 관계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나의 가족관계는 사랑하는 아내(양미자)와 대학 2년 다니고 이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자랑스러운 아들(미진)과 고등학교 2년 생인 예쁜 딸(연화)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에는 간암이란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다행히도 종양이 전이가 되지 않아 간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처님의 자비가 나에게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목숨 지나가고 새 삶을 사는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고 살겠습니까.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미약한 힘을 발휘할까 합니다

■ (사)한국제이티에스에 바라고 싶은 점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길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신정열 님과의 만남

지난 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도결핵퇴치 후원자 가입에 노력하는 신정열님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5일 정토회관 세미나실에서 만나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 한국제이티에스를 알게 된 동기는.



항상 마음 속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 듯 나서게 되지 않았는데 정토회에서 하는 제4차 천일기도를 입재하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용맹정진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려지고, 마산 유애경님을 따라 남부터미널 버스 정류소에서 모금활동을 실지로 해 보니 따스한 이웃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자 선뜻 모

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 이후 인도결핵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한 생명 살리기를 하게 되어 가까운 이웃에게 권하니 가까이 해주었지만 간혹 안 해 줄 때는 섭섭해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혀 모르는 이에게 할 때는 해 주어도 안 해 주어도 무관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해 줄거라 생각하면 꼭 해 주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보람된 일이 있다면.

부처님 법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정토지, 테이프 등을 전해 이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할 때 즐겁다. 힘들어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해 줄 때도 기쁘다. 내 조그만 노력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만족한다.

더욱 타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해 선뜻 해 줄 때 고마운 마음이다. 지금껏 52명을 할 수 있음도 평소에 신뢰받는 삶을 살아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냐고 말할 때 당혹스럽지만 6.25 전쟁 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우리를 도와준 일을 떠올리면 고마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냥 종교나 이념을 초월해 죽어 가는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선거철이라 후보자에게 권했을 때 다른 곳에 많이 한다고 거절할 경우 씩쓰레하고, 해 줄 것 같은 이들이 예외로 냉담할 때 자신의 공부라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을 없앤다.

■ 가족과의 관계는.

남편과 큰딸(대학교 3학년), 작은딸(대학교 1학년)이 있다. 남편 직장 관계로 원주에 살면서 자주 딸들을 만나러 서울에 온다. 남편은 이는 사람도 가입시켜 주시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딸들은 구체적으로 모른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부처님 법대로 공부해 이웃을 돕고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

*인터뷰 내내 웃고 있는 신정열님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부처님오신날 특집 KBS1TV “길 위의 불자들” 방영

5월19일 (일)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KBS 1TV에서는 오전11시-오후12시(60분)까지 인도 등게스와리 수자타이카데미, 지바카병원, 마을개발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그린 “길 위의 불자들”이 방영되어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했다.

JTS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들어가 “길 위의 불자들”을 클릭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jts.or.kr/kor.html

제4차 국제워크캠프 인도에서 진행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면접과 사전교육을 마치고 7월2일-17일(15박16일) 까지 인도 등게스와리에서 50여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마을 개발, 어린이 교육, 마을유치원, 화장실 만들기, 인도 문화 체험등으로 진행된다.

인도영사 제인 부부와 다스 가족 방문

5월19일(일) 부처님 오신 날 인도 영사이신 제인 부부와 다스씨 가족이 정토회를 방문하



였다.

작은 음악회에 루미다스(다스씨 부인)가 하 루모름(손풍금) 연주를 하면서 “기도”란 노래를 불러 보는 이를 즐겁게 했다.

인도에서 자원봉사 하는 정상민 부모님 사무실 방문



5월22일(수) 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 오셨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특집 KBS 1TV에 방영된 “길 위의 불자들”을 보면서 아버님(전병운)은 아들의 삶을 이해하시게 되었다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북한지원사업

한국JTS 6월 대북지원사업, 박지나 JTS이사 방북

지난 6월 4일 JTS에서 지원하시는 라선시 어린이 영양식 공장에 원재료인 쌀 15톤을 지원하였고, 6월 26일 또 다시 쌀 40톤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한 물자의 인수와 어린이 영양식



공장의 상태 확인,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영양식품이 잘 배분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4월 지원한 나선시 300정보의 비료, 비닐 지원한 농장의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박지나(JTS이사)님이 6월 26일-29일까지 나선시를 방문하고 돌아 왔다.

국내사업

인천 구산중학교 통일·봉사·환경반 방문

5월4일 (토) 오전9시-오후1시까지 인천 구산중학교 통일·봉사·환경반 권영미선생님과 35명 학생들이 본 회를 방문해 JTS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JTS 활동 빈민어린이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비디오도 보고, 인도에서 활동했던 이수진님의 인도이야기와 서로 느낀 점을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 보냈다.

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

인도 어린이 무료 급식지원

5월24일(금)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장 박경돈) 지점에서 성금 50만원을 갖고 오셨다. 본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도 등계스와리 수자타이카데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350명) 무료급식비로 후원 하셨다.

정성껏 모아 주신 성금 잘 쓰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홍보 및 모금활동

6월6일 (목) 마산법당 회원님 10여 명과 부산 청년 4명과 본회 실무자들이 홍보 및 모금 활동을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었다.

인도 등계스와리지역 어린이 돕기 모금 활동에 모인 금액은 539,370원이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름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한양대, 동국대 학생들이 여름학기 (6월-8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정토회관 세미나실에서 오전10시-12시까지 진행되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홈페이지 관리, 홍보, 물품관리, 회원관련 업무 등 각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물  품  후  월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착된 물품입니다.

- 1)대전법당 유아반팔티 35장, 유아런닝 31장 외 생활필수품 3박스
- 2)류회원 수건 2장, 세수비누 19개
- 3)자비의집 어린이바지 237장, 냅비셋트 40개, 소청 30필 외 의류 11박스
- 4)이혜숙 양말 48장
- 5)부산법당 비누 107장, 치약 45개 외 생활필수품 3박스, 재활용어린이옷 7박스
- 6)서울법당 비누 183개, 치약 35개 외 생활필수품 7박스, 재활용어린이옷 3박스
- 7)길래현 스케치북 120개, 크레파스 100개, 연필 500자루
- 8)조건행 학생가방 140개
- 9)진정연 세수비누 2,000개
- 10)최소영 스케치북 1,000개, 크레파스 1000개
- 11)마산법당 젓꼭지 94개, 어린이모자 90개 외 생활필수품 4박스, 재활용어린이옷 3박스
- 12)이종소(대창상회) 아동운동화 384켤레
- 13)송미란 본동초등5-1 연필 28자루
- 14)김청자 여름운동복 73벌, 실래화 20켤레, 슬리퍼 20켤레
- 15)김선우 양말 3켤레, 연필 64자루
- 16)보영섬유 어린이옷 500벌
- 17)손창원 구충제 5,000개, 영양제 1000개 20통, 연고 15그램 500통
- 18)신인숙 노트 100권, 연필 90타스
- 19)권영순 어린이티 70장
- 20)차용백,백정숙 크레파스 300개, 휴리닝 9벌
- 21)이정선 볼펜 120자루
- 22)신린학원 어린이티셔츠 200장, 재활용어린이옷 100장
- 23)동그라미어린이집 어린이티셔츠 126장, 바지 22장, 가방 20개, 재활용어린이옷 59장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2년 4월11일부터 6월12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

211-02625-11 정필자
211-02626-11 이주희
211-02628-11 김상호,김연수
211-02629-11 고경희, 팽종연
211-02630-11 김순호
211-02631-11 성지희
211-02632-11 이영순

인도어린이

111-02652-11 강유선
111-02657-14 하명희
111-02658-14 정필자
111-02659-14 이영선
111-02660-14 조호선
111-02661-14 류동진
111-02662-14 배외선
111-02663-14 황은단
111-02664-14 김숙희
111-02666-14 임병락
111-02667-14 배정애
111-02668-14 정병철
111-02669-14 최창수
111-02670-14 최일선
111-02671-14 윤채희
111-02672-14 노선오,노승환,노우영
111-02673-14 서제민
111-02674-14 권수영
111-02675-14 조동희
111-02678-14 이승민

111-02679-14 배창훈
111-02680-14 송부순
111-02681-14 최민철
111-02682-14 조성준, 조성빈
111-02683-14 이계영
111-02684-14 박소하
111-02686-14 전춘선
111-02687-14 이승하
111-02688-14 권수경

결핵퇴치회원

311-00046-43 김특규
311-00055-13 박경용
311-00056-13 박진
311-00075-13 김법련화
311-00057-13 윤원
311-00067-13 이현숙
211-02007-13 차유만
311-00068-13 윤정희
311-00070-13 심연옥
311-00084-13 김은숙
211-02318-13 소병선
311-00071-13 이예호
311-00072-13 김주양
211-02409-13 송하경
311-00080-13 이정아
311-00081-13 박종용,김애자
311-00082-13 백수현
311-00087-13 광미경,곽재한
311-00091-13 윤연자
111-02608-13 최미연

311-00099-13 노선아
311-00038-13 오주룡
311-00102-13 송장대
311-00094-13 최순정
311-00111-13 안혜숙
211-02342-13 노숙자
211-02513-13 고순남
311-00108-13 하주연,하재환
311-00079-13 최영주
311-00080-13 김지은
111-00105-13 백무현
311-00110-13 이반아심
311-00020-13 김용희
111-01886-13 김용보
311-00089-13 윤정남
311-00125-13 이대훈
311-00059-13 남궁선, 정영희,남궁원,남궁현
311-00088-13 최현순
311-00053-13 하재한
311-00079-13 신선재
311-00076-13 여순남
311-00084-13 김재홍
311-00085-13 김재은
311-00090-13 송혜진
311-00100-13 오성민
311-00093-13 김민영
311-00115-13 최옥례
311-00107-13 광복준
211-01636-13 김혜정
311-00078-13 최용선

특별성금

김묘길(1만원)
박근숙(50만원)
이상진영가(10만원)
대흥사한복스님외13명 (335,500원)
김기진(100만원)
박동만(1000만원)
강남수영가(50만원)
박재홍(50만원)
박재환(100만원)
박경진(50만원)
곽미경(100만원)
종합농경반(80만원)
김홍신(2000만원)
김강수영가(10만원)
김재근영가(10만원)
대각정사(70만원)
박동래(50만원)
부산동화를읽는모임 (65,710원)
구산중학교 환경, 통일, 봉사반(48,000원)
함용매(200만원)
승가대사회복지학과모금 (1,501,400원)
서울교대총학생회 (15만원)
김재권(100만원)
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 (50만원)
김은옥(20만원)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2년 4월17일 -6월12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과 거리 모금 액입니다.

■ 광주

●거리모금974,260 ●선덕사 194,010

■ 대구

●거리모금 : 거리모금 1,181,930 ●개인 : 구도형 19,720 김숙환 23,150 김양모 20,700 김양모 25,320 김영숙 79,680 김창십 5,000 김창십 10,000 남춘현 31,440 박동운 35,860 박민숙 20,000 박성숙 15,030 박현식 5,120 손순자 33,540 손창원 33,710 신금희 64,180 안춘복 16,640 유미애 전재근 44,900 유소희 4,740 유을용 2,720 이금희 29,300 이재숙 9,360 이태원 2,980 이현아 노다혜 12,830 전병득 82,700 정평화 47,790 조점자 24,130 최용근45,100 최용근 47,240 최창주 18,230 최혜정 7,760 ●무명 : 무명 11,940 무명 7,270

■ 대전

●거리모금 : 거리모금191,500 거리모금 1,600,260 ●개인 : 갈매기해물탕6,140 권원수 15,110 김경민 4,100 김관용 3,760 김남식 27,200 김누리 20,390 김두례 6,020 김두업 22,350 김성태 27,150 김시연 1,060 김영택 4,010 김재은 33,200 김정숙 7,070 김정환 8,070 김창연 22,200 나필원 15,580 명정숙 27,450 박태우 2,230 성백련 22,300 신길우 10,200 심석영 40,470 심홍희 17,040 원드밀 1,050 윤여곤 3,660 이덕순 41,470 이순자 35,110 이호준 32,190 이호준 4,890 인수한의원 46,690 임순백 36,720 임영수 4,890 이재왕26,190 전경숙 21,710 정용숙 36,680 정진옥 2,730 한연중 30,240 한형인 33,130 황귀숙 61,050 ●무명 : 무명 7,420 무명 7,850 무명 9,870 무명 8,130 무명 1,900

■ 마산

●거리모금 : 거리모금 17,477,550 거리모금 1,504,740 거리모금 468,450 거리모금 560,000 ●개인 : 및 단체 국군미산병원 53,670 동국산업 59,760 류연철 51,900 박기범 26,550 박종부 66,720 삼진고교 1-5 5,630 삼진고등학교 40,070 서숙남 5,850 수광지 42,800 신세권 42,970 신세권 40,410 신세권 55,550 양진철 12,210 이용직 57,500 임미현 13,830 임병주 2,860 전홍태 10,620 정연덕 31,800 최정옥 11,660 해탈심 23,850 흥원회20명86,000 황영익 10,720 ●무명 : 무명씨 14,670 무주상 26,940 무주상 79,900 무주상 1,400 무주상 3,710 무주상 32,270 무주상 7,420 무주상 4,820 무주상 810

■ 부산

●거리모금 : 거리모금 1,233,580 거리모금 300,000 거리모금 2,356,090 ●개인 및 단체 : 강동현 28,200 강미강 52,400 강분옥 22,510 고주형 17,740 권진순 13,350 김대진 29,800 김미경 16,290 김미선 28,650 김민수 12,270 김민수 22,800 김민재 15,860 김민정 20,310 김병숙21,300 김상록 14,320 김상조 석조 22,700 김소은 7,040 김숙자 11,560 김순애 27,220 김승도 30,110 김옥이 25,850 김정숙 82,900 김정호 26,700 김지은 8,120 김현아 16,610 김현옥 10,100 김홍순 18,710 김희재 40,580 나영숙 14,290 녹심초 100,000 녹심초 29,550 도비행 18,700 류정화 24,650 문은아 12,610 민다영 5,470 박복선 14,480 박성일 23,100 박성희 22,670 박영순 22,520 박월희 12,700 박정덕 34,890 박정필 25,300 박진경 12,790 배인옥 3,080 배인옥 7,660 사랑이뿔 6,280 서준혁 4,450 서준호 2,550 서진영 6,030 성조경 20,430 소인옥 11,100 손혜영 28,180 송신옥 5,120 송운초등학교 4/4 9,250 신새별 3,180 신영희 4,560 신옥숙 22,730 신진화 15,830 심지희 15,040 안순자 21,630 안용준 9,640안혜진 14,050 안혜진 3,300 안혜진 14,650 양덕여중 1,500 양덕여중 1/2 1,890 SKY 1,150 오남순 18,670 오수복 30,070 오은선 12,660 웅산초등학교 4050 웅산초등학교4-3 3,710 웅산초등 5,590 우연 주식회사 23,110 유미 22,340 유명일 신부님 43,450 윤문주 26,380 윤양순 11,290 윤원희 55,460 윤은의 9,130 윤진미 3,150 윤희자 11,250 이강민 수민 정민 31,450 이경희 13,370 이세만 3,030 이상진 8,790 이소담 18,830 이슬 이중 2,820 이시원 37,680 이옥희 20,790 이옥희 5,190 이우연 7,640 이재준 23,570 이종철 32,400 이종철 51,830 이혜일 5,160 이효정 8,140 이희자 6,390 이희자 21,490 임지에 11,490 장일선 76,500 장지나 18,560 장진하 11,910 장진하

3,530 장택석 24,930 전규희28,610 정경순 3,340 정복례 26,000 정성숙 14,830 정승미 6,650 정승아 안순자 17,700 정재영3,240 정재원 2,920 정정숙 23,880 정지수 28,300 조경림 8,670 조규현 8,680 조숙희 15,210 조춘선 17,970 진대철 진기홍 4,650 진현희 6,420 최광수 32,390 최광수 31,750 최병훈 25,000 최수경 2,970 최순이 최민섭 4,990 탁순옥 6,450 태길산 31,020 태길산 28,570 투다리 28,580 푸조 5,700 한국교육연구소 3,210 한국교육연구소 4,470 한국교육연구소 5,020 한국교육연구소 1,890 한동호 2,380 허순자 55,530 허아람 4,980 허연순 9,460 허영주 30,710 허인택 16,800 허중구 41,330 허헌 허진선 9,350 황주연 16,810 홍승태 3,430 홍승태 15,890 홍지연 18,570 ●무명 무명 15,800 무명 8,480 무명 18,400 무명 14,650 무명 4,180 무명 12,520 무명 13,580 무명 4,590 무명 30,830 무명 11,930 무명 14,660 무명 7,600 무명 3,460 무명 7,130 무명 29,050 무명 4,120 무명 11,980 무명 17,730

■ 서울

●거리모금 : 거리모금 2,348,630 거리모금 1,280거리모금 206,810 거리모금 29,810 거리모금968,800 ●개인 및 단체 : 강민경 9,980 김광자 74,800 김재춘 5,000 이승림 18,510 오주혁2,500 강바람 16,060 김금순 2,210 김재현 29,360 이승숙 22,840 오현수 37,530 강영화 45,740 김달휘 8,020 김주양 200,000 이승린 23,500 울산정보회 28,430 강줄기 12,650 김동욱 38,180 김주옥6,900 이영숙 25,230 김택훈 60,800 김준용 19,250 이유근 13,280 문영훈 20,500 유영규 11,240 강희석 30,700 김명원 2,600 김현숙 22,820 이유선 5,840 박경미 19,780 유상연 4,400 김범수 16,950 김혜련 20,000 이유진 31,920 박명기 6,660 유선재 26,210 김범수31,520 난정 10,000 이은숙 14,640 박명화 1,800 유승열 20,450 김생일 8,750 남경필 10,900 이인자 26,600 박성복 50,580 유영신 36,030 김선애 16,760 남성우 신은숙 28,820 이인자 25,060 박영사 10,000 유영진 28,820 김소영 21,140 노수빈 23,960 이인자 25,150 박영일 23,760 유영진 28,820 고미숙 24,340 김승순 23,080 덕암사 269,780 이재홍 20,760 박이교은 30,000 윤광현 3,150 고오환 82,690 김수길 1,000 독고의대 10,750 이정업 11,570 박이서로 25,000 윤일경 15,610 박보경 14,490 김승옥 승희 1,100 이주연 22,600 박정숙 17,670 이경애 2,500 박은춘 10,120 김애자 27,150 무량선 31,830 이지윤 5,570 박정혜 11,880 이금옥 3,000 광동여고 133,790 김연정 11,480 이춘식 3,970 박종혁 22,950 이늘아 32,450 광문중3-7 10,530 김영숙 28,050 이향원 3,820 박혜경 50,500 국민은행 초남 46,240 김영순21,320 이향원 9,190 방동필 34,600 권선옥 75,000 김영실 4,100 이혁재23,150 방학중학교 37,340 권수영 21,460 김유선 26,800 이현구686,090 배수는 13,200 권영민 14,050 김은숙 3,340 이훈 이성진 4,500 백혜진 30,000 권혜숙 21,700 김인수 320 이홍민 이수민 36,550 백혜진 30,000 금강일렉트 35,270 김자은 12,460 임종복 14,660 변수사 26,870 김근분 700 김재권 15,540 임혜진 23,890 본동초등학교 100,000 김관철 2,000 김재원54,830 자체 정사 70,000 불교환경연대 43,650 김광섭 26,140 김재전 5,000장금숙 25,000 서해옥 10,000 정은영 20,070 천남미 16,370 장도연 16,050 손병기 15,520 정은주 7,450 천재현 32,910 장명렬 16,610 송영실 19,530 정충진 윤수영 3,800 초연일식 14,790 장선오 35,100 송중하 28,690 정현숙 3,800 최연주 23,780 전옥련 200 송준용 11,330 정현호 16,860 최정애 300 정담지 7,700 송혜인 28,300 안남현 5,300 조연자 22,200 최정현 19,760 정동영(하음) 39,500 수인행 28,440 안천봉 3,300 조정희 34,750 최지연 21,560 정안사 24,500 스키니즈 초코통 113,290 양혜련 양영주 4,350 주광진 2,500 최평식 21,000 정윤자24,070 신경옥 5,900 엄갑인 13,870 지금련 14,110 최희 2,480 정윤조 7,920 신현중 39,500 연지민 18,810 지해남 5,000 하기완 27,780 허경미 215,000 황미옥 5,400 심유현 30,000 하디스 25,920 진윤숙 20,600 차상선 5,000 허경미 150,000 천갑순 14,660 학익여고3-1 58,400 하디스 49,400 진희영 15,660 현미화 1,900 천갑순 17,240 한정선 32,000 하재한23,790 ●무명 : 무명씨 25,380 무명씨 16,290 무명씨 17,330 무명씨 40,070 무명 73,490 무명 24,600 무명 17,420 무명씨 2,770 무명 19,900 무명씨 10,000 무명 4,030 무명 3,660 무명씨 1,410 무명씨 2,120 무명 25,080 무명씨 2,100 무명씨 17,980 무명씨 1,300 무명씨 1,100무명씨 1,500 무명씨 5,000무명씨 1,500 무명씨 10,000 무명씨3,790 무명씨 1,790무명씨1,700 무명씨650 무명씨 13,520 무명씨 700무명씨 780 무명씨 2,250 무명씨 1,300 무명씨 5,200 무명씨 300 무명씨 3,510 무명 31,590무명씨 1,230무명씨900

■ 울산

●개인 및 단체 : 남현준 10,710 명정초등학교6,386,200 명정초등학교 195,000 박정숙 41,800 이운대 8,260 정소민정진현 33,320 최옥자 16,160 ●무명 : 무명23,860

■ 청주

●거리모금 : 거리모금148,880 거리모금 397,130 거리모금 616,12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6. 10 현재

라지 · 섭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2. 6. 10 현재



후원 프로그램

인도 및 세계 빈민지역 어린이 돕기 후원

1,000원이면 어린이 7명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면 어린이 1명에게 학용품 및 교재가 지급됩니다.
1,000,000원이면 펌프 1대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 결핵 퇴치 후원

15만원이면 결핵환자 1명을 위한 검진 및 6개월간의 치료약과 영양식 식사가 제공됩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

5,000원이면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의 어린이 1명에게 1개월간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체후원은 탁아소나 유치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물품 후원

북한과 인도, 아프카니스탄 어린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기업에서는 재고물품을, 유치원 같은 단체는 몇 장씩 남은 단체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활필수품 지원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양말 등
문구류 지원 : 스케치북, 크레파스, 공책, 연필, 펜 등
의류지원 : 어린이 및 어른 의류, 어린이 단체복, 모자, 신발, 가방 등
의약품 지원 : 영양제, 상처치료제, 소독약, 붕대, 거즈, 솜, 구충제 등

사랑의 저금통 후원

예쁜 저금통에 사랑을 모아 주세요, 개인 또는 단체, 점포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어린이돕기 정기거리모금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 첫째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영남대 앞에서,
한 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대전, 청주, 광주에서는 부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기업이나 단체 협찬후원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으로 캠페인이나 모금후원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와 사진,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전 전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능이 있는 사람은 기능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 JTS가 일구어 가는
기아, 질병, 문맹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해외장기봉사활동(인도) : 6개월 이상 인도 동계스와리 JTS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 한국어,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의료(지비키병원) :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마을개발 : 무료급식, 건축,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해외단기봉사활동(인도) 워크캠프 :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보름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봉사활동 :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모조, 소식지제작, 홈페이지디자인, 영상물점검, 후원물품정리, 물품운반, 운전, 차량지원등